

사이버 페미니즘(다나 헤러웨이)과 에코 페미니즘(김선희)의 비교 분석

Study of Cyber-Feminism & Eco-Feminism

김영숙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Yeung-Sook Kim(smilekys0806@naver.com)

요약

다나 헤러웨이의 사이버 페미니즘과 김선희의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을 서로 상이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현대 과학기술의 성과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해방적 측면을 환영한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 속에 있는 전체주의적 시각과 인간부정의 측면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은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통해 생물학적 한계와 가부장제적 질곡에 얽매인 여성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여성을 그림으로써 모더니즘적 인간관에서 벗어나는 해방적 성과를 보여주지만, 과학기술과 생명과학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소수의 지배권력에 의한 위험성을 간과함으로써 안이한 측면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에코 페미니즘은 현대 과학기술이 소수의 지배권력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주목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육체성과 여성성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과학기술의 성과를 페미니즘이 담아내지 못하고 모더니즘적 이원론적 인간관에 머무르고 있다.

■ 중심어 : | 사이버 페미니즘 | 에코 페미니즘 | 사이보그 | 젠더 |

Abstract

D. J. Haraway's cyber-feminism and Kim Seon Hee's eco-feminism are so differ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While cyber-feminism thinks the outcome of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positively, eco-feminism criticizes the totalitarianism and the human negation which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gives rise to. Cyber-feminism gives us an image of the future female, but exposes an easygoing way of thinking of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eco-feminism takes notice of the risk, that the modern scientific technology can be abused by the power of the minority, but fails in overcoming of the traditional view of female.

■ keyword : | Cyber Feminism | Eco Feminism | Cyborg | Gender |

1. 서론

디지털로 대변되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사회를 이전 산업시대와는 질적으로 또 다른 사회를 형성

시켜왔다. 중세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판해낸 근대 모더니즘이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과 자유와 평등의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소위 포스트모던 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 역시 새로운 세계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8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8월 22일
교신저자 : 김영숙, e-mail : smilekys0806@naver.com

관과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다. 19세기 모더니즘의 지식으로 태어난 페미니즘은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으로서 모더니즘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비판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근대 자연과학의 정신을 대변하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모토는 제시함으로써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의 대상인 자연을 신부에, 과학(또는 이성)을 신랑에 비유함으로써 자연을 인식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려는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이처럼 세계를 자아/타자, 정신/몸, 이성/감정, 문화/자연, 남성/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전자에만 진리와 주체성을 부여하고 후자를 전자에 의해 지배, 관리되어야 할 수단으로 파악하는 모더니즘적 세계관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밝혀냈다.

필자는 근대 모더니즘의 한계를 페미니즘이 탁월하게 비판해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현대 페미니즘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있어서 요구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제공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과학기술 시대를 분명한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고 진단하는 대표적인 두 현대 페미니즘이 바로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 (내지 사이버 페미니즘)¹⁾과 에코 페미니즘이다. 사이보그 페미니즘이 현대 첨단 과학기술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이와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에코 페미니즘은 여성성과 자연의 일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남성성과 일치하는, 과학기술 발전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는 녹색운동을 전개한다. 예컨대 여성철학자 김선희는 「기술시대에 여성성의 긍정과 공감의 인문학」(2015)에서 사이버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비판하면서 에코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일 먼저 이처럼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이버 페미니즘과 에코 페미니즘의 내적 논리와 차이점 및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사이버 페미니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다나 해러웨이의 이론과 우리 사회에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이버 페미니즘과 에코 페미니즘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입장들이다. 본 논문이 현재 진행형 속에 있는 두 입장의 발전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이 과정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페미니즘의 역할에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II. 사이버 페미니즘의 내적 논리와 에코 페미니즘의 내적 논리

디지털 혁명으로 대변되는 현대 첨단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현격하게 변화시켰다. 그 중에서도 다나 해러웨이가 주목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 혁명과 생명공학의 발달이다. 디지털로 구현되는 사이버스페이스나 인터넷 세상에서 우리는 익명성을 누린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성, 인종, 국가, 나이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체성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 세계는 이전 시대 의사소통의 주된 방식이었던 선형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분산적이고 비선형적 세계이다. 이성 중심의 논리적이고 위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형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사이버 세계는 통제되거나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측면을 주목하여 주디 와츠그먼은 ‘디지털 혁명이 ... 전통적 헤게모니 구조와 남성이 지배하는 권력기반의 쇠퇴를 예고한다’고 말하고 있다^[1].

또한 현대 생명공학의 발달은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여성의 출산을 생물학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치명적 질병을 해결해 줌으로써 인간을 육체의 제약에서 일정부분 해방시켜 주었다. 정자은행을 통해 아이를 낳는 여성이나 성전환수술자가 얼마든지 가능케 되었고, 인공 보정기, 인공 각막이나 성형수술과 같은

1) 사이버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오스트레일리아 예술가 그룹 VNS Matrix와 세이디 플랜트(Sadie Plant)가 1990년대 초에 협업하여 만든 용어로, 이들은 사이버스페이스가 여성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나 해러웨이의 페미니즘 역시 과학기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이버 페미니즘의 영역에 포함된다 하겠다.

기술을 인간의 자연적 신체에 이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 위에서 탄생되었다. 다나 해러웨이는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더 극단적으로 밀고나가 이제 자연과 문화는 더 이상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문화가, 문화 속에 자연이 함께 혼종, 및 혼합적으로 존재함을 주목한다. 따라서 다나 해러웨이는 자연과 문화를 이항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아예 자연문화라는 하나의 단어로 명명한다[2]. 이처럼 다나 해러웨이는 자신에게 있어서 자연과 문화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범주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일종의 상속받은 폭력으로 주체와 객체의 분리에 근거한 근대 철학과 근대 과학의 유산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나 해러웨이는 자동 제어원리와 관련을 맺는 유기체인 사이버네틱스와 유기체의 합성어로서의 사이보그의 탄생을 선언한다. 사이보그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질적 존재들을 결합시키고 있다. 기술과학이 개입하는 환경 안에서 사이보그들은 종의 경계들을 흐트리는 이질적인 것들의 혼종으로 존재한다. 다나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이보그가 바로 ‘양코마우스TM’과 ‘여성인간©’이다. 생쥐 ‘양코마우스TM’은 유전자가 이식된 유기체이다. 유전자가 이식된 유기체란 한 유기체의 유전자들이 또 다른 살아 있는 유기체의 게놈 속으로 이식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실체물이다. 결국 ‘양코마우스TM’은 신빙성 있게 유방암을 생산하도록 이식된, 인간의 종양을 생산하는 유전자의 결과물이다. 다나 해러웨이는 생쥐 ‘양코마우스TM’을 인간구원, 즉 유방암 치료를 약속하며 인간을 대신해 고통을 인내하다 죽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다[3]. 다시 말해 유전자가 이식된 생쥐 ‘양코마우스TM’은 유방암 치료를 위해 인간을 대신해 고통을 받는 존재로 상표가 붙은 최초의 살아있는 피조물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양코마우스TM’은 생명이 어떻게 기술화되어가며 자연을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적 범주가 흐려지는 지점을 드러낸다 하겠다.

둘째로 ‘여성인간©’은 다나 해러웨이가 조애너 러스

의 과학 소설 『여성 인간』(*The Female Man*)의 제목에서 따온 여성 인간이란 용어를 한 단어로 붙여 사용한 용어이다. 여성인간은 여성이 인간을 대표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종류 상 모순이다. 다나 해러웨이는 여성인간이란 용어를 이전 시대의 보편적인 남자와 보편적인 여자에 대한 설화를 붕괴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나 해러웨이는 ‘여성인간©’은 ‘양코마우스TM’처럼 정보학, 응용생물학, 경제학이 내파된 이후에 살고 있는 존재로 보는데, 그 내파의 발발 날짜를 1970년대 초반 유전공학 실험이 처음 성공한 시기로 잡고 있다. 결국 여성인간©는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간유형으로 이전의 이분법적인 젠더를 넘어서는 인간이다. 다시 말해 여성인간은 더 이상 자연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사이보그가 되는 여성이며, 유기체와 기계로 구성된 잡종의 피조물인 사이보그를 탄생시킨 현대 과학기술은 여성에게 새로운 힘과 권력의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첨단 IT 기술과 기계에 의존하는 환경이나 유전자 이식 기술 등은 젠더, 인종, 생물학적 종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1970년대 하이테크의 현실에서 사이보그를 선언했던 다나 해러웨이는 이제 2000년대 생물공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몸이 타자의 몸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 기계, 동물을 연결 짓는 동반종(companion species)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해러웨이는 새로운 여성인간©과 양코마우스TM을 동반종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반종이란 자연적 진화와 기술과학에 의한 과정에서 서로 바라보고 보살피야 할 관계에 있는 종을 말한다. 해러웨이는 동반종의 개념을 하나의 범주라기보다는 ‘함께 되어감’, 또는 ‘종의 상호 의존’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서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상호 돌아보는 관계, 이것이 동반종의 상호의존이 갖는 내용이다[5].

이와는 달리 에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김선희는 오늘날 첨단 기술의 전개 과정에서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는 새로운 종류의 빅브라더와 함께 부상하고 있는 전체주의 사고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개별적 육체를 초월하려는 탈육화의

경향이다. 그런데 김선희는 기술 전체주의와 탈육화의 경향은 인간부정과 여성부정의 사고에 근거하며 이 두 가지는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6].

김선희는 한나 아렌트가 언급한, ‘기술시대에 내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즉 과학과 기술은 가능한 한 인간을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인공 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러한 경향이 바로 ‘기술시대에 내재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경향’이다. 그런데 이렇듯 인간조건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김선희는 기술시대의 근본악으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기술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인간조건을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7]. 예컨대 전세기와 지구를 도구화하고 인공적인 네트로 뒤덮으려는 시도(유비쿼터스),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며(생태계 멸종) 지구를 파멸시키고(핵전쟁) 중국에는 지구를 탈출하고자(우주식민지) 하는 기술적 시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인공적 사물로 대체(자연의 종말)하려는 경향 등은 전체주의의 경향으로서 인간 고유의 실존에 반하거나 인간의 조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김선희는 이와 같은 기술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는 인간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 또는 지구나 인간조건을 초월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간부정의 사고 위에서 있다고 본다. 김선희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과정은 인간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그런 점에서 기술의 발전은 인간성을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예컨대 기술을 이용하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을 추구하거나, 자연스러운 죽음에 저항하는 의료기술을 도입하고 노화 방지를 위해 성형과 미용술을 이용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실존의 한계인 생로병사에 개입하여 간섭하고 저항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인간성 자체를 경멸하고 혐오하는 기술 문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부정의 사고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인간실존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물적 육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결부하여 김선희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마련된 사이버공간은 인간의 탄생과 사멸성을 담고 있는 육체성을 부정하는 탈육화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그런데 육체성을 부정하는 탈육화 경향이란 결국 개개인의 차별성, 즉 개인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태도를 갖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다나 해리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 페미니즘은 정보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생물학적 성별에 구속받지 않고 활동하고, 심지어 기술/기계와 결합하여 탈생물학적 존재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김선희는 이러한 사이버 페미니즘의 전략은 결국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가부장제 사고는 인간의 동물적 육체가 지닌 취약하고 부정적인 속성(즉 질병, 고통, 연약, 상처, 죽음 등—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주들, 동물, 육체, 자연, 땅/지구, 대상/타자 등)을 여성에게 귀속시키고, 그와 대립하는 초월적인 속성(즉 영원, 무병장수, 강건, 영생 등—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주들, 정신, 문명, 천상, 주체 등)을 남성에게 부과한다. 그런데 기계와 융합하여 성별을 초월하는 사이보그가 되려는 사이버 페미니즘은 탈육화 경향을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육체성)에서 분리되고 벗어나고자 했던 가부장제 남성의 꿈에 귀결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때 더 이상 생물학적 몸(따라서 성별)은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몸과 더불어 성별을 초월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가? 그것은 인간혐오(여성혐오)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여성을 제거/초월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기계와 융합하여 사이보그가 되고 성별을 초월하고 탄생과 사멸조차 없는 탈육화의 정보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 정보의 토막으로 환원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이보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별과 젠더의 범주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종(기술이 창조해 낸 강화인, 혹은 포스트휴먼)이 될 것이다.

성/여성이 제거되고 무성적 존재로서 몸을 초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육체성을 초월한 정신이 되는 것, 인간적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여성(육체성)에게서 분리되고 벗어나고자했던 가부장제 남성의 꿈이 아니었던가? 여성과 육체는 사라지고 탈육화한 가부장제 자아(남성)만이

남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그 여성주의 전략은 인간부정/여성부정의 사고에 따라 차라리 여성을 제거하는 전략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성을 제거함으로써 여성주의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것으로 해소되어 버릴 것이다.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부정하고 여성을 제거한 셈이다. 이것이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그 여성주의 전략의 역설인 동시에 텔레마이다. (김선희, 16쪽)

김선희는 이처럼 기술, 그 자체에는 인간의 죽음과 탄생에 개입하여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통제하고자 하고, 인간의 취약성과 유한성을 극복하여 인간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부정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김선희는 기술시대의 인문학의 역할을 바로 이러한 인간부정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인간공정의 의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실존적 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유한하고 취약한 몸이야말로 공감이나 동정심의 도덕적 감수성을 기르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김선희는 우리의 몸을 기술에 맡겨 해체, 분산, 정보화하는 등 끊임없이 실험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성을 해체해서는 안 되고, 몸(여성)의 긍정을 통해 인간성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김선희는 여성(몸, 자연)혐오의 가부장제 사고와 인간부정의 기술 전체주의 사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술 전체주의적 사고는 인간의 유한한 몸의 실존적 조건 속에서 배양되고 물려받은 인류의 유산들-즉 인류애,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감수성, 공감과 연민, 동정심 등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비와 용서, 사랑과 포용, 나눔과 베품 등 인간다운 것들은 모두 죽음과 영원한 이별 등 인간 조건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더욱 절실하게 드러나는 감정들이다. 이런 입장에서 김선희는 페미니즘이 인간의 실존적 유한성(탄생과 죽음, 취약함과 지구성)을 긍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고통과 한계로부터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실존적 치유의 인문학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III. 두 페미니즘을 가르는 쟁점들

사이버 페미니즘과 에코 페미니즘의 차이는 제일 먼저 첨단기술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현대 디지털혁명과 생명공학의 발전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의미의 출발점으로 보는데 반해, 에코 페미니즘은 첨단기술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에 주목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사이버 페미니즘은 디지털혁명과 생명공학의 발전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과 그것에 귀속되는 속성들을 이전 시대와 다르게 인위적이고 임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음을 환영하고, 여성의 삶이 더 이상 자연적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이버 페미니즘은 이전 가부장제 사회에 있어서 자아/타자, 정신/몸, 이성/감정, 문화/자연, 남성/여성으로 나누어 사유하는 이분법적 사유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사이버그, 또는 여성인간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의 탄생을 예고한다. 이제 여성은 가부장제가 규정한 타자로서의 여성, 즉 남성의 속성(자아, 정신, 문화, 문명화된 것, 실재, 전체, 행위자, 능동성, 옳은 것, 진리, 신성 등)을 결핍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에코 페미니즘은 과학과 기술이 가능한 한 인간을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인공세계를 구축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전체주의적 경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탈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즉 인간조건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본악이다. 유비쿼터스, 생태계멸종, 핵전쟁, 우주식민지, 자연의 종말 등 전체주의적 사고는 인간 고유의 실존에 반하거나 인간의 조건을 부정한다.

특히 인간의 신체를 해체시키고 신체의 경계를 분산 시킴으로써 탈육화 과정으로 나아가는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탄생성과 사멸성을 담고 있는 육체성을 부정하고 개인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태도로 귀결하고 만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정은 인간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며, 인간성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는 인간부정의 사고를 토대 위에서 있다. 이때 인간성이란 언젠간 사라질 육체를 갖고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성질로, 육체를 여성과 동일시하는 가부장제 사고를 상기해보면, 결국 이러한 인간부정의 기술 전체주의 사고는 여성혐오의 가부장제 사고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에코 페미니즘의 입장에 따르면 기계와 인간의 결합체인 사이보그라는 존재는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유형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유한성, 탄생과 사멸성)을 간직한 연약한 몸을 배제시킨, 매우 위험한 인간형일 뿐이다. 그리고 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인간유형은 과거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들이 바라던 남성상이며, 바로 이런 점에서 사이버 페미니즘은 자가당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인식이 서로 상이한 사이버 페미니즘과 에코 페미니즘은 젠더에 대한 입장에서도 서로 극명하게 갈린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기계인간인 사이보그와 인간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문명과 자연, 주체와 대상, 적극적인 존재와 수동적 존재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파악한 가부장제적 인간관을 해체시켜 이항대립의 경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이전 시대의 젠더 개념을 폐기했음을 선포하고 인간관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 위에서 자연적 몸, 연약하고 취약한 몸에 근원한 인류애,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감수성, 공감과 연민, 동정심 등을 간직한 여성성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유의미한 미래지향적인 인간성을 발견한다.

IV. 사이버 페미니즘과 에코 페미니즘의 문제점

사이버 페미니즘은 현대 첨단 과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사이버 페미니즘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기술 혁명이 우리 인간의 삶에, 특히 여성의 삶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제도로 군림했던 가부장제 사회에서 인간은, 특히 여성은 철저하게 생물학적 한계에 갇혀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여성에게 있어서 성의 선택은 필연적이었으며, 임신과 출산, 질병과 죽음 등 여성의 대부분의 삶의 내용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동일시되었던 자연, 육체, 감정, 대상성 등 이외에 남성에게 동일시되었던 반대급부의 것들, 즉 문명, 정신, 이성, 주체성 등이 여성들의 삶에서 배제되고 허용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해방적 의미를 갖는다고 본 사이버 페미니즘의 논거는 수긍할 만하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들은 자기 속에 있는 자연성, 육체성, 감정, 대상성 등을 억압하고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 사회는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연성, 육체성, 감정, 대상성 등을 단순히 문명화, 정신성, 이성, 주체성, 적극성 등의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있는 양 측면들을 그 자체의 가치대로 인정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여성이나 남성은 이전 사회에서처럼 한 성에게 한 측면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지 않고, 다양하게 허용되며, 더 나아가 양성성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역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사이버 페미니즘의 일정한 공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들은 남녀의 노동 조직 형태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 남성들에게엔 사회적 노동은, 여성들에게엔 가사와 육아라는 보살핌의 사적 노동을 각기 다르게 강요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회적 노동과 보살핌의 사적 노동을 함께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아이를 둔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도 점차 이러한 변화가 마련해주는 공간-시간 유연성을 받아들여 고용과 아이 돌보기를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사이버 페미니즘이 언급하는, 인공두뇌 유기체로서의 기계인간이나 여성인간이란 개념이 아직은 피부에 와 닿을 만큼 보편적으로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잠재적인 맹아로만 존재하는 개념들을 확대 해석해 미래의 인간을 적극적으로 확신적으로 그리는 점은 사이버 페미니즘이 지나치게 안이한 사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첨단 기술이나 유전공학을 이용할 수 있는 부가 극히 소수에게만 허용된 현상 상태에서 사이보그를 찬양하는 것은 매우 나이브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오늘날 디지털기술과 생명공학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세력의 등장과 이와 연관된 지배권력의 비대화의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여성의 성매매가 사이버 공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가, 더 극단적으로 인간복제나 유전자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그 자체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까지 예견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에코 페미니즘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이 자동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격상시켜주거나 과거의 이분법적 인간유형을 해체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주디 와이즈먼은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해결책이 새로운 기술을 몰신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기술 생산의 심장부에 있지 않는 한 여성은 권력의 지렛대에 손을 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디 와이즈먼은 그 이유를 사이버 페미니즘이 일상적으로 젠더가 실천되는 결정적 장소인 노동의 조직 형태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다시 말하자면 육체로서의 신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해방 전략일지 모르지만,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해결책이 물질과 자원의 젠더화된 분배 문제는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작업장에서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주지는 못한다고,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8].

이지언 역시 디지털 기술이 그 자체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변화시킨다거나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것이

라고 보는 사이버 페미니즘은 순진한 낙관론 내지는 기술결정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본다. 확실히 새로운 전자 매체는 가정적 역할에 한정되어 있던 여성들에게 잠재적으로나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여성을 지역 공동체의 건설과 전지구적 기획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지언은 사이버 공간의 인간으로 접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변형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가를 묻고 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성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삶을 산다고 해도 실제 신체를 완전히 벗어난 젠더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것인가를 의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지언은 결론적으로 사이버 페미니즘의 의미를 디지털 기술이 수반하는 가능성, 즉 새로운 이야기(내용)를 탐재할 수 있는 소통가능성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9].

젠더 문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배적인 조직 안에서 매번 재구성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수행적인(performative) 행위로서의 젠더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데[10], 이는 위에서 언급한 주디 와이즈먼의 작업장에서의 권력의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젠더는 다나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여성인간의 존재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전 시대의 젠더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역학의 장에서, 사회조직 안과 밖에서, 작업장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언제나 새롭게 재형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이버 페미니즘과는 정반대로 에코 페미니즘은 무엇보다 첨단과학 기술의 해악에 주목한다. 김선희는 인류의 시초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왔으나,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자체를 개선시키는 기술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동기 안에는 기술의 효용과 독립적으로 인간성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인간 부정의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기술의 이런 현상을 한나 아렌트는 기술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선희 역시 기술시대의 전체주의적 사고는 인간이 필요 없는 유토피아, 또

는 지구나 인간조건을 초월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간부정의 사고 위에서 있다고 본다. 예컨대 유비쿼터스, 생태계 멸종, 핵전쟁, 우주식민지, 자연의 종말 등은 전체주의 경향으로서 인간 고유의 실존에 반하거나 인간의 조건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전체주의적 과정이 아무리 결합되기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과학기술과 전체주의적 과정은 완전히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육체의 허약함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간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배 권력의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술은 그 자체 인간에게 해방적인 도구로도, 또는 억압과 지배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전하면 할수록 그 해방의 의미도, 반대로 해악의 크기도 그만큼 더 막강해진다.

문제는 만약에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주목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거부한다면 페미니즘은 인류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킨 채 자기폐쇄적 범주 안에 갇혀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지배 권력에 의해 잘못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 때문에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을 통째로 거부한다면 현대 첨단기술에 의해 이전 시대에까지 인류를 억압했던 한계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측면을 페미니즘이 간과, 내지 배제시켜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면, 예로 페미니즘은 과학기술의 잠재력까지 거부함으로써 페미니즘이 자기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우를 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선희는 디지털혁명에 의한 탈육화 경향을 전체주의적 태도와 연결시킨다.

인간이 자신과 신체에 기술을 적용하여 끊임없이 실현 대상으로 삼으면서 신체를 해체시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지이다. 즉 두뇌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기계와 결합함으로써 탈육화의 사이버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정보의 흐름에 따라 신체의 경계를 분산시키는 것 등은 인간의 탄생과 사멸성을 담고 있는 육체성을 부정하고 개인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태도이다. (김선희, 11쪽)

김선희의 논리를 분석하자면 전체주의적 태도는 개인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개인성은 육체성에 근원하는 것이므로 육체성을 부정하는 탈육화 과정으로서의 디지털기술은 결국 전체주의적 태도로 귀결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삶에서 디지털기술이 차지하는 위치는 제한된 것이다. 인간은 사이버공간 속에서 잠시 동안만 자기의 육체를 초월할 수 있을 뿐 결코 육체를 완전히 초월하지 못한다. 또한 아무리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사멸하지 않고 영원히 불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디지털기술이나 유전공학의 기술은 성이나 출산, 결정적 질병이나 노화의 문제 등을 일정 정도 해결해 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인간의 탈육화 정도는 명확한 한계를 갖기 때문에 개인성을 벗어나거나 개별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결과 디지털 기술의 전체주의적 태도의 가능성 역시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이 그 자체 개인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태도를 갖는다는 김선희의 논리는 심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희는 육체성을 초월한 정신이 되는 것이 가부장제 남성의 꿈이었음을 상기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탈육화를 옹호하는 사이버 페미니즘의 전략은 결국 여성과 육체는 사라지고 탈육화한 가부장제 남성만 남게 되는 자기모순에 도달하고 만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선희는 인간부정의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초월하려는 기술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인간의 실존적 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유방식을 제안한다. 김선희에 따르면 무엇보다 우리의 신체가 곧 인간이며, 우리의 몸이 인간성을 담고 있다. 공감은 육체적 토대를 근거로 한다. 우리가 고통 받고 상처 입을 수 있는 물리적 토대로서 몸이 없

다면 우리는 공감의 유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하고 취약한 몸을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고(특히 그 안에서 인간성의 가치)는 공감과 동정심의 도덕적 감수성을 기르는 원천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 김선희는 인간의 유한한 몸의 실존적 조건 속에서 배양되고 물려받은 인류의 유산들, 즉 인류애와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감수성, 공감과 연민, 동정심 등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김선희는 기술진체주의가 조장하는 인간 부정의 의미체계 안에서는 인간성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기술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을 긍정하며 거기에서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간공정의 인문학이 요청된다고 보고, 그것은 동시에 여성성의 긍정에서 출발하는 여성주의 인문학과의 동행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긍정과 여성의 긍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옹호는 이전 가부장제 하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항 대립의 한 항목인 과거의 여성성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가치절하하고 ‘지배하는 이성’[11]을 추구했던 이전의 남성성이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감과 배려라는 미덕을 가지고 수동성과 나약함 속에 머물고 있는 여성성 역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는 미약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태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남성이 자연을 정복하고,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사회적 노동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온 것처럼, 여성은 자신의 주된 노동인 육아와 가사노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따라서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남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노동이 요구하고, 또 이것을 통해 형성되는 용기, 절제, 냉철, 자립심, 합리성, 정의 등을 사회 전체의 주요 덕목으로 높이 평가해 왔다. 그러나 여성들의 사적 노동이 요구하는 것, 또 이를 통해 형성되는 것

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해와 포용 등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길기건은 전통적으로 철학사 속에서 관심과 배려, 이해와 포용 등과 같은 여성적 덕목들이 간과되고, 정의와 평등과 같은 남성적 덕목들만이 주로 다루어져 왔던 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의의 관점에 윤리적 특권이 부여되어 왔던 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근대 윤리학자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성 능력에 기반한 정의의 관점에서 윤리 문제를 다루었다. 정의의 관점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여성을 배제시킨 공공 영역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의 관점이란 여성을 제외한 남성들 사이의 합리적 계약을 맺어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적 윤리를 반영한 것이다.

남성들의 합리적이고 냉철하고 보편적으로 사유하는 경향과 여성들의 뛰어난 감수성과 이해심, 공감하는 능력은 사실상 남성들의 실제적 삶과 여성들의 일반적 삶의 성격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보편적인 법의 지배, 공정한 게임 룰의 확립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능력이며 공정성이라는 도덕이다. 이에 반해 주로 사적인 삶을 영위해온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민감한 이해와 공감 및 배려이다.

이렇게 볼 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의의 관점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배려의 관점이 보다 우월할 윤리적 덕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의 성립과 사회 구성원의 보다 충실한 자기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의와 배려가 올바르게 결합된, 윤리적 차원일 수밖에 없다. 결국 근대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하는 이성은 배려하는 이성이라는 더 높은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거칠게 말해 보자면, 배려하는 이성은 타인의 사적인 필요와 욕구와 민감하게 반응하고, 궁극적으로 타인의 행복과 선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단지 사적인 사고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적인 차원, 즉 정의의 문제까지 고려할 줄 아는 이성의 능력을 구비한, 이성과 감성이 결합된 윤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김선희가 제시하는 주요한 덕목인 인류애와 인간적 가치와 도덕적 감수성, 공감과 연민, 동정심 등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몸의 체험에서 비롯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물적 본능이나 감정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유와 평등, 양심과 도덕감, 존엄성 등의 인간적 가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성적 능력과 결부된 것으로, 대표적인 남성적 덕목들이다. 김선희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그러한 인간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몸은 인간의 실존적 조건(유한성, 탄생과 사멸성)이다.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신체를 부정하고 기술에 의해 탈육화된 정신을 추구할 때 인간성이 상실되고 그리하여 인간적 가치(자유와 평등, 양심과 도덕감, 존엄성)도 상실될 것이다.(김선희, 19쪽)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 양심과 도덕감, 존엄성 등은 보편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이성 능력(칸트에게 있어선 실천이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수성, 공감과 연민, 동정심과 다르게 남성들의 윤리적 덕목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김선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류의 유산에는 여성적 가치들뿐만 아니라 남성적 가치들도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김선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을 오로지 여성적 덕목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선희는 이 여성적 덕목이 과거의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여성성과는 다른 것임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에코 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여성성은 이미 전지구적으로 연계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여성성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연계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여성성이란 개념은 현실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사이버 영역을 배제시키고는 성립되기 어렵다.

에코 페미니즘의 과도한 우려와는 다르게 디지털 기술은 인간을 육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무리 첨단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의 삶의 유한한 조건은 결코 제거될 수 없다. 현대 첨단기술은 단지 생물학적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인간에게 그 한계의 경계선을 조금 확장시켜 줄 뿐이다.

물론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마이크로칩스, 유전자변형, 클로닝, 정보기술의 새로운 발견 등 신재생산기술은 여성의 몸을 남성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산기술은 통제와 감시의 기능 뿐 아니라 통제에서 벗어날 자유의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12].

이렇게 볼 때 과학기술을 곧바로 전체주의적 사고나 인간부정의 사고와 동일시하는 에코 페미니즘의 사고는 비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되는 과학기술이며, 이때 지배 권력은 전체주의적 사고나 인간부정을 의도하기 때문에 지배 권력에 의해 이용되는 과학기술은 전체주의적 사고나 인간부정의 사고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배 권력이 과학기술을 이런 방식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과학기술 자체를 전부 부정해 버린다면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제공해온 모든 문명적 혜택을 거부해 버리고, 그 속에 있는 해방적 의미까지 함께 버려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V. 나오는 말

현대 페미니스트들과 보드리야르, 리오타르, 푸코, 데리다 등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은 모두 다 근대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는데 일치하고 있다. 특히 현대 페미니스트들은 근대 모더니즘이 갖는 한계를 지배하는 주체로서의 정신과 이성, 영혼과 문화, 그리고 남성대 주체의 자기실현을 위한 단순한 질료로서의 물질과 감정, 육체와 자연, 그리고 여성을 상호 완전히 이질적이고, 상호 계층적으로 파악했던 이원론적이고 도구주의적 세계관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 내지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생태계의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 한계를 노정시켰다. 즉 이제 이항 대립의 한쪽 항에 있는 물질과 감정, 육체와 자연, 그리고 여성은 단순한 주체 A를 위한 수단이나 재료가 아닌 독자성을 갖는 것, 즉 not A가 아니라 당당한 B로 존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남성 역시 인간의 일면적 속성에 갇힌 존재이며, 이제 남성도 자기 자신의 육체나 감정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적어도 이러한 측면에서 페미니즘이 인류 사회에 일정정도 공헌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서도 페미니즘이 담당할 역할이 막중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현대 첨단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양면성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지배 권력에 의한 과학기술의 이용을 우려 깊은 시선으로 보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이버 페미니즘이 디지털 기술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지금까지 여성을 옥죄었던 성과 임신과 출산, 노화 등 생물학적 한계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음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면, 에코 페미니즘은 인간 사회를 전면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지구 자원을 고갈, 오염시키고, 핵전쟁으로 지구를 파멸시키고, 우주에 식민지를 만들려는 지배 권력에 의한 과학기술의 이용 가능성에 커다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의 사회가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를 소유한 소수의 엘리트와 대다수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대중들로 양분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13].²⁾

모든 이론은 아주 다양하게 착종된, 중층적 복합 현실의 일부를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의 전선 역시 다종다기 할 수 있고 또 다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의 기본 입장과 방향은 명확할 수록 좋다. 더 이상 자기의 육체와 감정을 억압하지도, 자기의 정신과 이성 능력을 억압하지도 않는, 새로운 인간 유형의 탄생 (예컨대 인간여성)은 페미니즘이 견지해야 할 기본 노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간유형의 탄생은 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통제하려는 소수의 신엘리트 내지, 지배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투쟁, 생활 전선에서의 분배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직장과 가

정에서의 남녀의 협업의 추구, 일상생활에서의 총체적 인간성의 실현과 이 모든 것들과 연관된 새로운 페미니즘적 인문학의 출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비로소 가능한 인류의 과제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주디 와츠그먼, *테크노 페미니즘*, 박진희, 이현숙 (공역), 서울 : 궁리, p.100, 2009.
- [2] 다나 J. 헤러웨이, *한 장의 잎사귀처럼*, 민경숙 옮김, 서울, 갈무리, p.11, 2005.
- [3] 현남숙, “사이보그 수사학에 나타난 몸의 형상화,” *한국여성철학*, 제18권, p.56, 2012.
- [4] 다나 J 헤러웨이, *겸손한 목격자 @제 2의 천년 여성인간© 앙코마우스TM를 만나다*, 갈무리, 민경숙 옮김, 갈무리, p.157, 2007.
- [5] Haraway, Donna Jeanne,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19, 2008. 현남숙, 위의 논문, p.56, 재인용
- [6] 김선희, “공감적 자아에 관한 여성철학적 모색,” *한국여성철학회*, p.9, 2015.
- [7] H. Arendt, *The Human Condition*(Chicago University, 1958) 인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p.36, 1996. 김선희, 위의 논문, p.10, 재인용
- [8] 주디 와이즈먼, *테크노페미니즘*, 궁리, 박진희·이현숙 옮김, 궁리, pp.171-177, 2009.
- [9] 이지연, “과학기술에서 젠더와 몸 정치의 문제 - 다나 헤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제17권, p.107, 2012.
- [10]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 Routledge, 1990.
- [11] 김영숙, ‘지배하는 이성’과 ‘배려하는 이성’ 이성이라는 개념 쌍을 통해 본 영화 <피아노>, *페미니즘 철학과 영화 분석*, 한국전자도서출판, 2016.
- [12] 정문영, *페미니스트 재생산기술 담론의 정치성,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p.401, 2011.

2) 예컨대 유발 하라리는 일부 업그레이드된 소규모 특권집단이 전대미문의 능력과 전례 없는 창의성을 지닐 것이고, 그런 힘을 이용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다수의 결정들을 계속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13]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영사, 김명주 옮김,
김영사, p.474, 2017.

저 자 소 개

김 영 숙(Yeoung-Sook Kim)

정회원



- 1980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철학과(학사)
- 1982년 8월 : 서울대학교 철학과(석사)
- 1993년 8월 : 서울대학교 철학과(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예원예술대학교 교양학부 정교수
<관심분야> 젠더, 대중문화, 예술철학